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은퇴자 시상 및 특별 제직회

다음 주일(16일), 찬양예배 시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은퇴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셨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1937년생으로 만 70세에 이르러 정년을 맞아 은퇴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일선에서는 은퇴하지만 이분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수 14:10-12) 더욱이 이분들은 신실된 장년4부(만 70~75세)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은혜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재정에 관한 2007년도 결산과 2008년도 예산을 위한 특별 제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12일) 수요일 2부 예배 후에 있을 정기당회 시에 2007년도 결산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 제직회를 통하여 모든 제직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마 16:18)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흔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16:15) 2007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결산 및 예산을 위한 특별 제직회에 모든 제직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명단은 본지 7면을 참조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찬양집회)

어두움에 빛

(요한복음 1:9)

에 사는 백성들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마음에 꿈을 그린다. '저 아름다운 궁전에 언제나 가 볼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궁전에 가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왕의 제단사가 가장 좋은 옷감으로 정성껏 만든 겨울 옷을 들고서 왕께 나아갔다. 이 제단사는 왕을 위해 손수 만든 옷을 자신만만하게 왕에게 보냈다. (시 45:8) 세상에 구하기 힘든 이 고급 옷은 빛깔과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일품이었다. 그러나 왕은 흥분하거나 감격하지도 않았다. 그 옷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다. 옷만이 아니라 그 어느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왕에게 별로 기쁨이 없음을 알게 된 왕의 보좌관들은 불안한 분위기를 느꼈다. 도저히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왕도 해명해 주지 않았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것도 왕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마침내 왕은 자신의 옷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포하였다. 왕실의 문은 굳게 닫히고 왕은 며칠 동안 밖으로 출입을 하지 않았다. 간간히 방에서는 덜컹덜컹하는 소리만 들릴 뿐, 식사를 나르는 자들만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며칠 후 왕실의 문이 열리고 왕이 옷을 입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입을 연 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은 너무나도 평범한 아니 남루한 옷차림이었다. (골 2:6-8) 평범한 옷감에 색깔도 무색이다. 왕으로서 그는 얼마든지 다른 좋은 것들을 택할 수 있었건만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택하였다. 당당한 제왕같은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천민의 모습이었다. (사 53:1-3) 당당하고 권위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왕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다. (마 2:13) 이뿐만이 아니라 왕은 당시 스스로 저 밑에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실 것을 선포하였다. 왕은 홀로 그곳으로 내려가셨다. 왕은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 천한 옷을 입고 내려가셨다.

왕은 계곡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터에서 일하시며 집으로 돌아가 함께 저들의 장막 속에서 지내셨다. (마 1:23 ; 사 53:4-6) 왕은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 (시 2:11-12)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저들의 아기를 안아주시고, 부모가 죽으면 함께 장례도 치러주셨다. 병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늙은 자들을 도와 주셨다.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에는 즐거운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셨다. 아를 때에 는 찾아가 위로하셨고 이들이 회복되던 함께 기뻐하셨다. 성공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실패할 때에 함께 슬퍼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함께 먹고 마시며 저들이 입는 것을 함께 입으셨다. (사 53:7) 왕은 모든 면에서 그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요 1:9-11)

이 짧은 이야기는 크리스마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눅 2:10-14)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영광의 옷을 입으셨던 분이 평범한 옷을 입고서 외딴한 굴굴을 떠나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마 8:20)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시의 팔을 펴 인간들을 안아 주셨다. (고후 8:9) 하나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몸과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골 1:15-17)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태어로서 임하셔서 북중에서 자라나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이 피조물의 세상에 임하셨다. (골 1:26-27, 2:2-3)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분이 되셨다. (사 9:6)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천한 땅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우리 집, 우리 이웃에게로 오셨다. 왕으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마 1:18, 21, 24-25)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야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보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 주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왕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선물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일어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득한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아멘.

KING HEROD

⁽¹⁾Now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in the days of Herod the king, magi from the east arrived in Jerusalem, saying, ⁽²⁾“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¹⁸⁾“A VOICE WAS HEARD IN RAMAH, WEeping AND GREAT MOURNING,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AND SHE REFUSED TO BE COMFORTED, BECAUSE THEY WERE NO MORE.” ⁽¹⁹⁾But when Herod die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in a dream to Joseph in Egypt, and said,
(Matthew 2:1~19)

Many Christmas sermons are based upon today's Bible verses. Most of them talk about the wisemen because they were Gentiles, not Jews, who journeyed from afar by faith. They had no Bible, but they had a star and real faith. The Jewish people had sermons, prophets, and priests, but little to no faith. In today's passage, heaven gives attention to the wisemen, but pays even more attention to King Herod. An angel came to Joseph in a dream and said, "Get up! Take the Child and His mother and flee to Egypt, and remain there until I tell you; for Herod is going to search for the Child to destroy Him." (v. 13) Herod plays a major part in this affair. He deceives the wisemen and wants to destroy Messiah. Even though he is king of Jerusalem, the cattle that surround Christ are viewed more highly than him and a stable in Bethlehem upstages his palace.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is enemy of Christ.

Herod had a troubled heart. As a king who ruled over the Jews, his position should have been one of appreciation. His people were waiting for Messiah. Even though this Messiah was to become the true King of the Jews, He was only a baby. Until Jesus grew to be a man, he could still rule as a king. After the wisemen arrived at his palace and explained their mission, Herod "was troubled." (v. 3) His inside desire was selfish, which resulted in his terrible actions. The wisemen sought his help in finding the King of this world. Herod had his chief priests and scribes discover His location, and then told the magi to find Him and report back to him, so that he could also worship Messiah. Herod never showed up. He feared for his job. He thought he was going to lose control because he was not a true Jew. He knew about the prophecies and what Scripture had to say about Christ being the real king, which is why he wanted to kill Him. Herod is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the majority of today's Christians. He was a prideful man without faith. He was afraid to lose control of his life to Christ. Are you afraid to lose control of your life to Christ? The wisemen worshipped Christ, while Herod worried about Him. The wisemen gave, while Herod groaned. The wisemen praised, while Herod plotted.

Herod's troubled heart brought trouble to others. Not only was he anxious, bothered, and worried, but "all Jerusalem with him." (v. 3) Whenever you are troubled it affects the people around you. If you honor and accept Jesus Christ honestly, your faith will

positively touch others. When you reject Christ, your disobedience will negatively affect others. Romans 14:7 says, "For not one of us lives for himself, and not one dies for himself." If you do not live for Christ, then you have a harmful affect on others. Your life, hard work, and suffering should bless others. Do you bring heartache or blessings to others? Herod's troubled heart upset the whole of Jerusalem. He murdered every male children in Bethlehem and all its vicinity from two years old and under. (v. 16) Can you imagine some soldiers coming to your house and killing your sons for no reason? This actually happened, and the Bible describes the horrific pain, "A voice was heard in Ramah, weeping and great mourning, Rachel weeping for her children; and she refused to be comforted, because they were no more." (v. 18) Herod slaughtered the children of Bethlehem, where Jesus was born, where angels sang, and now mother's weep. The place of glory became a place of grief, all because of Herod. Bring your troubled heart to Jesus Christ and He will take your trouble away and give you peace.

Herod's troubled heart will last forever. When he died (v. 19), he died without faith in Christ. He died in his sin, jealousy, and anger. The consequence is eternal punishment. His mind was fixated on killing Christ because in his heart he wanted to be the king of kings. He went from suffering to suffering. His soul is still troubled in Hell. Herod missed out on God's grace. Christ came to save, but Herod died lost. Christ came to cleanse, but Herod died guilty. He was the one in Jerusalem to receive the first message, so he could have been the one from Jerusalem to firstly welcome Him. Christ gives peace, but Herod died troubled.

My dear friend, where is your heart for Jesus' coming? Is yours in Jerusalem or Bethlehem? Herod was in Jerusalem, he was King, he was supposed to go, The wisemen not supposed but come Jerusalem and go to Bethlehem. How about you? If you reject Jesus, you will never find peace. I want you to remember that the wisemen sought and worshipped Jesus Christ. They gave their hearts to Jesus, not only that, they still give us God's wonderful message. Herod was an enemy of Christ because of his pride. His troubled heart led to a terrible life that hurt many people. He died in trouble, and now lives in suffering forever. Please be wise and seek after Christ. Be joyful and worship Him. Lay down your troubles and give your heart to Jesus. 

다음 주일 설교

헤롯왕

⁽¹⁾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²⁾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¹⁸⁾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¹⁹⁾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2:1~19)



김성판 목사

많은 크리스마스 설교가 오늘 읽은 본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방박사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먼 길을 여행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말씀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이 동방박사들을 주목하면서도 더 큰 관심은 헤롯왕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 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으려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13절) 헤롯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박사들을 속이고 메시아를 해 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은 자신이었지만, 그리스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자신보다 더 고귀해 보였고, 베들레헴의 보잘것 없는 마구간이 자신의 왕궁보다 더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헤롯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의 변민

헤롯은 변민했습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훗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단지 갓난아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왕궁에 와서 자신들이 온 목적을 말했다 때 헤롯은 “소동”했습니다.(3절) 그가 품은 욕망은 지금 이 이기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세상에 나신 왕을 찾기 위해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찾게 한 다음 동방박사들에게 그를 찾거든 돌아와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메시아에게 경배 드리려 한다든 그릴듯한 구실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헤롯은 결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헤롯은 그를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이 아닌 자존심으로 꽂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릴 때 헤롯은 그리스도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지만 헤롯은 변민했습니다. 박사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 헤롯은 계락을 찢습니다.

온 예루살렘의 소동

헤롯의 변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헤롯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마찬가지였습니다.(3절) 여러분이 근심에 싸여 있을 때 그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그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7

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수고, 심지어 고통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복을 안겨다 주는 사람입니까? 헤롯의 변민은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사나이들을 죽였습니다.(16절) 갑자기 군인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아들을 죽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성경은 그 끔찍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18절)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고,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던 그곳은 이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애곡 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이 슬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헤롯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변민

헤롯의 변민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19절) 그는 자신의 죄, 질투와 분노 가운데서 죽었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헤롯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 되는 게 그의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민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려고 오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잃은 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깨끗케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헤롯은 죄 가운데서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안에서 처음으로 복된 소식을 접한 사람이었기에 구세주를 첫 번째로 영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기를 원했지만 헤롯은 변민 가운데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입니까?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베들레헴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무런 이유도 하지 않았던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소식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결코 평화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경배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근심하는 자가 죽었고 지금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즐거움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2007. 12. 5.)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 4:14~16)



기독교는 진리이다. 진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4:6)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요 6:40)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에 실재(reality)한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실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날 본문은 대략 2500년 전에 실재했던 일을 기록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대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실재한다는 것이다. 대략 B.C. 470년에 실재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당시 세계의 패권은 바사 제국에게 있었다. 그래서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는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에 1:1)

이 때 와스다를 이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다. 그녀를 위한 잔치를 베풀 정도로 아하수세로왕의 에스더를 향한 사랑은 대단했다.(에 2:17~18) 에스더는 비록 나라를 잃고 바사의 포로된 유대인이었지만 더 이상 부를 줄 것이 없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에스더는 변치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에 2:20) 그런데 이 때 유대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바사의 총리대신이었던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에 3:6) 아하수세로왕도 하만의 계획을 허락하였다.(에 3:8,10)

어두운 시대에 구원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너무 어두웠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다.(에 3:14) 그런데 우리도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는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이 어둠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다. 최철한 신앙인들로 인해 교회사도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참 신자를 향한 교회 안팎에서의 핍박은 매우 심각하다.(에 15:8~19)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구원자를 준비하셨다.(요 16:1~2)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에 빛을 주셨다.(창 1:3) 더군다나 창조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다. “속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또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딤후 3:16~17)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인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

다”(시 27:1~2)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위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에 여자와 남자를 사용하신다

물질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은 에스더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여자와 남자를 사용하신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계락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그리고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임을 각인시켜 준다.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 내로 말미암아 농일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에 4:14)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에스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목수 요셉과 시골처녀 마리아가 있었다.(마 1:20~23) 요제브와 미리암을 사용하여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 기도는, 다니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삶과 동행하여 일하지 않으시며 삶 속에 실재하신다. 보혈로 거듭난 참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찬 208장)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여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에만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에스더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라는 모르드개의 말에 에스더는 즉시로 응답하였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16)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하였다. 에스더는 잠시 유대민족을 모른 척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서 준비하신 구원의 도구임을 알았기에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결국 유대민족은 구원을 받았고 악한 계락을 꾸며낸 하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순종이 그녀에게도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행 1:14) 자신의 뜻을 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요 16:23)

“주가 말진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찬 231장)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실재하기에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이다. “이 때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겹손히 무릎을 꿇자.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럴 때 천국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생명 있을 동안에 …… 아무 일을 만 나도 예수 의지합니다.”(찬 342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⑥

* 대주 철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부 4명을 부르시다 (1:16~20)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다.(막 1:16) 그 중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나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 계속해서 그 해변을 조금 거슬러 가시다가 그들을 손질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셨다.(막 1:19~20) 놀랄만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막 1:18)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곧 …… 그 아버지 세베대를 삼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막 1:20)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인간적 권위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아들의 권위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곧”이라는 단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의 모든 근방으로 퍼졌다.(막 1:28, 2:1)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4명의 어부들은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은총이지! 바로 본문의 초점이 이것이다. 권위와 은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와 은총이 제

자로서의 나의 삶에 배어 있는가?” 이 물음에 자신을 돌아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십자가를 지시러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다. 베드로 자신도 십자가가 싫어 십자가를 부인하며 피하려고 하였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갈릴리로 돌아갔다.(요 21:3) 그의 실명은 손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의 실명은 ‘차’만 있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열심이 있었다. 어느새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권위와 열심뿐이었다. 이같은 그의 열심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내가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은 아닌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율법과 예식에만 매여 있지는 않은가?(막 2:18)

“말씀에 의지하여”(눅 5:5) 이것이 제자의 유일한 모습이어야 한다. 권위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은총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이 순종에는 모든 것의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막 1:30 : 마 8:21~22) 그만큼 자기들을 완전히 부인해야 한다. 대제관 수아오르는 죄성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야 한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권위와 은총이 배어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나의 선택이 아닌 권위와 은총이 담겨있는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신령한 예배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말 구유에게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세리(눅 18:13)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예배는 오직 보혈로 정함을 입은 신자들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한 나의 준비·지식·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진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롯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삼 3:34) 주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풍성한 예배

같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보혈의 은총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노"(히 9:14)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보혈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보

혈의 은총으로 충만한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의 유일한 통로인 보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과 경건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보혈에 초점을 맞추어 보혈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신령한 예배로 세워져 가는 교회

보혈로 충만한 신자는 예배를 온전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말만 앞세운 신령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08년에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예배 시작 15분 전에 미리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모임이 인해서 예배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주보와 (주간중현)의 말씀을 미리 읽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은총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은총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2008년! 우리의 삶 자체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런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충만한 신자들이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아멘.



이 훈(장로, 예배위원장)

CMTC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 1:26)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다 이루었으니 십자가가 예수님만 바라보라 한다.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이라 하신다.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2007년 9월 첫 주일에 2008년 단기성교를 위한 CMTC 훈련에 참석했다.

첫날 말씀을 들으며 흥분되는 기쁨을 참으로 감출 수 없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이다. 참된 복음이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형상의 회복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어지는 것은 자유, 사랑, 평안, 인내, 소망, 위로만이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지키심, 천국과 영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함이 축복이라 믿으며, 그래서 그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도 막연히 물질도 축복의 한 가지라 생각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람을 높음으로 희미하던 모든 것들이 말씀의 감으로 모두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확실해졌다. 주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CMTC훈련을 통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가리시던 언젠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이에 한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고 나를 자랑하려 한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정욱(집사, 22교구)

주님이 보내신 심부름꾼들

현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난한 한 과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치 기다린 듯 우리를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할 줄 몰라 하셨습니다. 영접 기도 후엔 눈물을 펄펄 쏟으시면서 고마워하셨고, 우리와의 이별을 정말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남부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심부름꾼보다 더 귀한 영혼이었습니디. 우리는 그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날씨가 추워진데다 많은 빙까지 내렸습니디.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사람이 있었기에 쏟아지는 빗속을 헤쳐며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았습니디. 이동 중에 차가 두 번이나 미끄러져 사고가 난 뻔 했지만 우리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디. 오히려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동안 우리는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디. 그런데 우리가 초청을 받은 그 집은 경찰 가정이었습니디. 우리는 매우 놀랐지만 그의 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체험했습니디.

(이정미(집사, 3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1월 26일(월) - 12월 4일(월)	21교구	김재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간	팀	팀장
12월 11일(월) - 12월 18일(월)	2교구	김종호
12월 11일(월) - 12월 18일(월)	새가족목부	나승은
12월 12일(수) - 12월 19일(수)	16교구	문연식

새로운 소망 하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래요?"라는 말 한마디에 함께 출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안 주님께서는 저를 급하지 않게 천천히 만나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해 주셨고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 또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공부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을 많이 알지 못하고 아직 말씀도 많이 읽지 못한 내가 과연 어려운 <로마서>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두려운 마음보다는 <로마서>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로마서> 공부 시간은 복음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믿음의 구원을 통해 예배와 찬양,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복음은 그저 낯설고 '읽기 힘든 일'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에 대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십자가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소망 하나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인 반을 수 있도록 해 깨어서 준비하는 주님의 딸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 마음 속에는 두려움도 많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저를 빚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길이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아멘.

신혜인(성도, 수요일성경공부 수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성경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한다. <마가복음>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하여 배우면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였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예수님의 '메시야' 되심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다. 마침 위임자들의 필요에책기교회와 <마가복음>과 함께 갈 것 다득 은혜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로 시작되는 <마가복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로마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도다"(막 15:39)라는 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야' 이심을 강조하였다. 한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हम 메시아로서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였다.

김하경(집사, 수요일성경공부 수료)

휴직조각 같은 삶에서 찬양의 삶으로

지난날 저는 주님의 말씀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평안하고 평범한 삶에 부딪히 되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주님의 말씀에는 마음과 귀를 모두 닫고 살았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 찬양대원양성부 교육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저 같은 죄인의 입술을 열어 당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저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사로온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방법뿐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의 마음가짐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교육을 받으면서 제 자신의 문제점을 하나씩 알게 되었고, 주님 품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 많은 몸이어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금방 또 "예수님, 난 당신을 몰라요!"라고 부질없이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를 기다리실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항상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환성(성도, 찬양대원양성부 수료)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어느덧 금요찬양집회 때 선포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열한 번째 듣게 되었습니다. 늘 같은 은혜로 출현하지만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 "화평을 주실 것이라"는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인과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럴과 붉은 옷을 입은 산타들로부터 거리는 화려하게 꾸며집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 저도 모르게 들뜨게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웃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는 그저 내게 익숙한 대로 살아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와 세상에서 살아 가는 저의 모습은 참으로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저를 혼내시거나 꾸짖으시는 것 대신 저에게 더욱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크신 주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었기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 죄로 툭툭 뭉쳐진 죄인인 나를 위해 값으로 매길 수조차 없는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작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일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높고 깊고 넓기에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저는 알 수 없었나 봅니다. 저의 죄 된 모습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주님 앞에 낮게 엎드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 이제 저의 두 팔 주인의와 태운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 달라고.....

김지영(집사, 4교구)

찬양이 나에게 주는 은총

찬양 부르고 듣는 걸 좋아하는 나는 지난 11월 16일에 있었던 '충현 찬양의 밤'을 오레 전부터 기다려왔다. 평소에도 '금요찬양집회' 때 2시간 내내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주님께서 이 죄인의 건구를 들으신 걸까?' 찬양의 밤을 기다리는 나는 마치 초등학교생이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마냥 기쁘고 설레고 행복했다. 올해부터 가브리엘 찬양대원으로 세워 주신 시간으로도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의 밤을 통해 나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했다. 연설 시간에 조금 늦었지만, 교회와 나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생겼다. 지하철에서 약보를 꺼내 들고 휴식존에 미리 녹음한 찬양을 들으며 외우는데 그 시간이 왜 그리도 감사인지 기쁘고 감사, 그 자체였다.

드디어 핸드북 연주대의 연주로 '충현 찬양의 밤' 시작! 순간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삼았다고 마음 속으로 고백하며, "오! 주님, 이 죄인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계속된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호산나 찬양대의 <그때까지>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주 날 부를 그때까지 찬양하리라!"고, 이어진 충현 장로 중창대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을 통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았다.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조금 넘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니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했다. 이런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또다시 감사했다. 마치 막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할렐루야>를 부를 때에는 너무 기뻐 아쉬움마저 밀려왔다. '벌써 마지막 곡이라니.....'

나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늘 찬송을 듣는다. 찬양을 듣고 싶노라면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쏟아져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 아닌가 싶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다.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쳐나길 기도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유용환(집사, 6교구)



2007년 은퇴 시상자

장 로 김은호(578) 김은철(89-1472) 최차용(2610) 대수 순 (3명)

안수집사 강진택(85-620) 이균우(96-1223) 대수 순 (2명)

권 사 김국자(86-775) 김동금(80-424) 김은영(89-1552) 김인숙(741) 김정숙(88-868)

김진연(3631) 김운식(82-836) 김춘지(1576) 김혜숙(1473) 나정순(84-661)

박민혜(79-167) 박윤식(82-223) 박점순(2127) 백경옥(79-9) 변성옥(4081)

서계실(2948) 신병만(2781) 안은희(4491) 안정희(81-431) 어수덕(79-28)

우경자(83-331) 유금순(3393) 유금열(643) 이규숙(1992) 이정숙(84-799)

이정순(448) 이혜수(80-810) 전신희(634) 최낙희(93-1175) 허연옥(87-644)

홍영숙(83-550) 가나다 순 (31명)

은퇴 시상 12월 16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찬양예배 30분 전에 예행 연습이 있으므로

은퇴 시상자는 본당 앞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42	윤석준	7	청년1부	권동희(24)
1843	정두만	14	장년3부	박인정(4)
1844	윤성은	13	청년2부	강복희(13)
1845	신혜주	19	청년1부	하일영(19)
1846	함성희	1	청년1부	김형숙(1)
1847	김경록	16	청년2부	강혜원(20)
1848	신정숙	17	청년2부	정종원(23)
1849	최주연	2	청년2부	안치원(1)
1850	이동현	14	청년2부	정종원(23)
1851	김유진	9	청년2부	김영미(20)
1852	주인구	10	청년1부	이진구(6)
1853	이형권	16	청년1부	김병익(16)
1854	박은희	15	고등부	왕현정(4)
1855	권미영	12	청년1부	정경순(12)
1856	조길자	12	청년2부	이홍수(12)
1857	박재영	1	청년1부	이태식(11)
1858	이시형	15	청년2부	이태식(11)
1859	이미영	13	청년1부	김복현(13)
1860	유정은	22	고등부	조윤재(22)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은퇴를 앞두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고갱마루에서, 또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아무리 피땀 흘려 살아도 세상 일은 결과는 결국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상의 소용돌이와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정말 주 예수의 값없는 은총이라고밖에 없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중현교회를 볼 때 감동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중현 장학생들의 간증에서 중현교회가 '복음이 살아 있는 좋은 교회'임을 감시하며 기뻐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한 학생은 "교회에 대한 불만과 갈등 속에서 다른 교회를 전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의 귀중함을 깨닫고 새벽기도회까지 참석하며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한 학생은 "한 교회의 소문만 듣고 한 때 그곳에 출석했지만 복음 없이 들떠 있는 모습에 실망하고 다시 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새가족은 직장을 따라 서울에 와서 큰 교회들을 전전하던 중 중현교회에 참석을 해 보니 목사님의 설교가 순수한 복음이고, 악보 없이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과 자비 봉사자들의 봉사하는 모습이 은혜로와 등록을 하였습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는 좋은 교회의 장로로 이 좌인을 기쁨 부어 세워주시고 정년이 되까지, 그리고 훗날 부르신 그 날까지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진정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비록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못다 한 일들이 많으나 이제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아직 다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장차 가계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저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때를 생각하며 오늘도 찬송을 부릅니다. "예루살렘 금성이 복 가득 하도다. 나 받은 모든 기쁨 다 축망 못하리..... 그때까지 나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 때까지" 아멘.

김은호(장로, 8교구)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오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면서 십자가 복음을 한시라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정과 길거리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가 나왔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을 생각하면서 귀박을 이겨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음으로 가르쳐 주신 위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박윤석(권사, 9교구)



